

AAIR(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성장 자취와 미래

AAIR 편집장,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1. 기획부터 SCI 등재까지 (2007-2011)

AAIR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공식 영문학술잡지로, 국내 알레르기 및 면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오랜 염원과 학회 선배들의 헌신으로 2009년 10월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그림 1). 당시 초대 편집장인 순천향의대 박춘식 교수는 창간호의 논평에서, AAIR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선도 영문 학술잡지를 목표로, 질적으로 학문적 우수성 충족과 함께 투고 및 편집 시스템, 홈페이지 디자인, 우수한 영문 교정 체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SCI 잡지로 발전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발간 2년전부터 여러 실무진 교수들은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홈페이지의 준비와 관련 영문원고 준비, 투고 시스템 구축, 잡지 방향, 논문 저자 선섭외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여 완성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리 학회보다 앞서 SCI 잡지가 된 대한방사선학회 잡지나 J Kor Med Sci/Yonsei Med J의 편집장들과의 workshop을 통하여 다양한 전략 방향을 논의하였다. 모든



그림 1. AAIR 창간호 (2009년 10월호)

분들의 지혜와 헌신이 모인 참으로 열정적인 시간이었다. 특히 AAIR 준비위원회는 초기부터 SCI 등재를 목표로 하였기에, 각 논문의 인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 유명 연구자들의 종설을 초대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대상자는 국내 연구자들이 당시 국외 연수 중인 과의 유명 지도교수, 당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회나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유명 교수님들이 주요 섭외대상이었었고, 주제와 분야 또한 알레르기 분야의 핫 토픽들을 선별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창간호의 종설 저자를 보면, 천식의 동물모델과 성인 천식의 글로벌 임상시험 연구를 주도한 캐나다의 O Byrne 교수, 미국 National Jewish Hospital 의 Gelfund EW 교수, 식품 알레르기의 대가인 미국 뉴욕 Sampson HA 교수로, 분야별 세계적인 대가들의 종설을 게재하여, 첫 호부터 우리 학회의 국제 경쟁력과 네트워크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초기 판들의 원저와 증례는 대부분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들로 채워졌고, 국내 저자들의 종설과 논평 집필은 국내 시니어 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부탁하였고, 실제 많은 교수들이 적극 지원하였다. 발간 회수는 첫 해부터 2011년까지, 매 3개월마다 년 4회 발간하였고, 매 회마다 종설 저자의 초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투고와 인쇄, 영문논문 완성 및 편집에 이르는 길고 정교한 과정 (manuscript

editing<ME>, reference checking, English editing, PDF 제작, PUBMED upload)은 모두 국내 기업과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한 협업은 국내 영문 잡지 발전과 토양 마련,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어, 지금 돌아보니 매우 잘한 일 중에 하나라 확신한다. 누구나 비 영어권에서 영문학술잡지를 창간하게 되면, 특히 SCI 등재 잡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 보다 성공률을 높이고자, 고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국외 유명출판사와의 협업을 고민한다. 유명 해외출판사와 협업은 모든 영문 (세련된 영어 구사) 문서 작업에 도움이 되고, 이미 구축된 선진화된 투고/심사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고, 영어논문 심사/편집/간행 과정도 이미 구축된 노하우와 Database(심사위원/종설저자 pool) 활용이 가능하며, 영문교정과 저자확인 절차 및 심지어 홍보활동까지 모두 지원하니, 첫 시작 단계부터 모든 과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우리 학회가 매년 높은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출판사의 policy에 따라 비용은 매년 상승), 저자들이 논문 출판시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reprint 비용도 높다. 게다가 모든 정책이 상호협약이 아닌 일방적 계약에 의한 종속적인 관계라 불편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논문 관련 모든 지적 재산권이 우리 학회가 아닌 국외 출판사에 속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금 생각하여도 우리 학회가 모든 권한을 지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

창간호 발간 당시 본인은 부편집장으로, 편집장이신 박춘식 교수를 보필하면서, 논문 심사뿐 아니라 해외 종설저자 섭외와 해외 홍보가 주된 업무였다. 매 국제학회 참석시 주요 주제별 강의를 들은 후 해당 연자들을 섭외하였다. 지난 얘기지만, 종설 투고를 수락하시는 교수들도 많지만, 면전에서 무안을 당하거나, 수락 후 메일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일들은 아직도 쓴 기억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국제학회와 협업하여 행사 중 홍보물을 올리고, 국제학회 강의 전, 후 홍보 슬라이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현재는 해외연구자들에서 AAIR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라 자신한다. 또 하나의 행운은 PUBMED CENTRAL과 SCORPUS 등 국제적 DB에 초기 논문부터 등재에 성공한 점이다. 이는 초기부터 모든 논문을 open access 체계로 했던 전략과 함께,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널리 노출/다운로드 되어 인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였고, AAIR가 조기에 SCI 잡지로 등재되고, 인용지수 (impact factor, IF)를 높이는 1등 공신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2. AAIR의 도약과 미래 (2012-)

2009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12년 6월 드디어 첫 SCI IF를 통보 받았고, 이 때 편집위원뿐 아니라 모든 학회원들이 축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당시 첫 IF는 1.913로 출발이 순조로웠다. 이후 현재까지 IF는 지속적 상승추세에 있고, 2017년 IF는 3.81로 알레르기 분야 SCI 잡지 중 10위에 기록되었다. 논문 발간수도 2011년 SCI 등재된 이후, 다양한 나라에서 논문 투고가 급증하여 (초기에는 게재료 무료였음), 2012년부터 매 2개월마다 년 6회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논문 발간수가 증가하면, IF 유지에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 본인은 2014년부터 편집장을 맡고 있고, 매시간 우수 논문 유치를 위해, 그리고 논문의 인용도를 높이기 위해 씨름 중에 있다 (이는 모든 SCI 잡

지 편집장들의 만국적 고민 사항임). 학술잡지의 생명은 학문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AAIR 편집위는 논문의 질적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단계의 ME 과정이다. 매달 부편집인들과 미팅하면서 게재 예정인 논문들의 재검토(질/정확한 표현 여부, 영문법) 과정을 거친다. 특히 논문 작성법의 대가이신 민양기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열 일 제치고 참여하시는 전 편집장 박춘식 교수, 열성적인 최병휘 교수, 학구열에 불타는 ME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또 다른 변화는, 2018년부터 논문 편집 과정 후, PDF본 작성/인쇄본 동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2개월 전에 게재 예정 논문들을 미리 upload 하여, 논출의 기회를 촉진하고 논문의 인용도를 올릴 수 있다. 또 다른 AAIR의 장점으로 게재료가 편당 500불로, 국내에서 발간되는 타 SCI 잡지에 비해 합리적이다. 현재 주 저자들의 분포는, 국내 연구자가 가장 높지만, 중국, 터키, 중동, 유럽, 일본 등 국적은 다양하다. 현재 논문 접수 수가 높은 만큼, 즉시 탈락률과 게재 거부률도 높은 편이다. 논문당 speedy and qualified process를 강조하고 있어 논문 심사에 헌신하는 (주말마다 push 문자를 받고 있는) 부편집인/심사위원들께 다시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 AAIR가 국제적인 잡지로 고공하기 위해, 투고부터 심사/출판/편집 체계를 고도화하고 심사자의 국제화를 확대해야 하며, 우수한 국내외 리더들의 종설/원저 초대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회원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는 AAIR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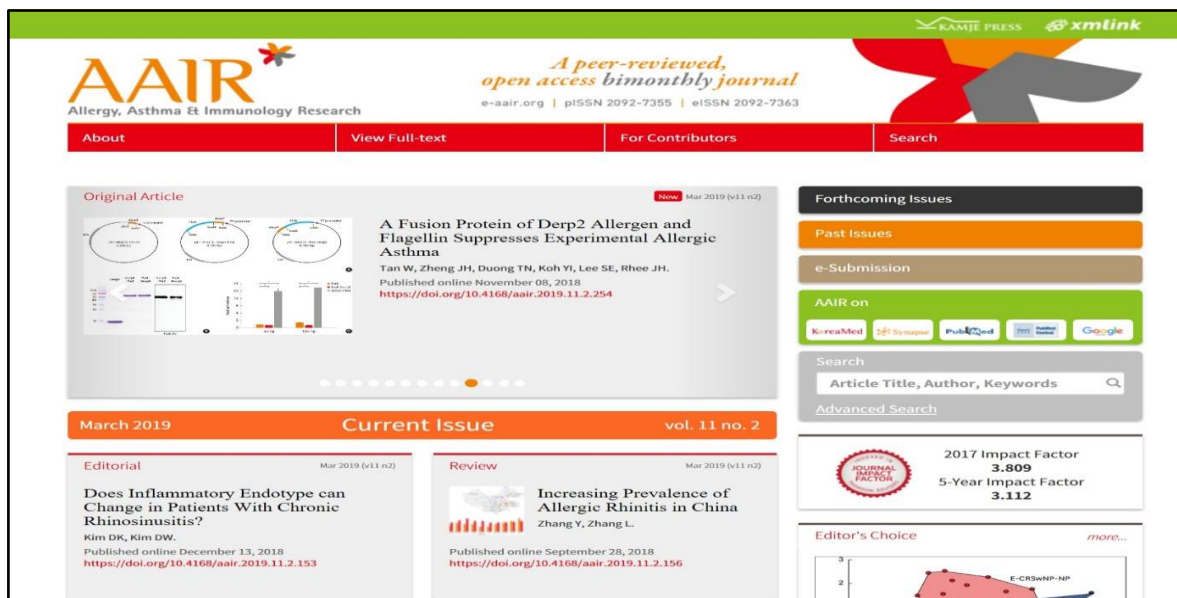


그림 2. AAIR 홈페이지